

# 미국을 벼랑 끝에서 구해낸 경제정책의 실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이론은 어디에도 없다. 이론의 논리전개가 아무리 정치하고 그 논리구조가 아무리 미려하더라도,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현실의 진행이 아무리 비이성적으로 보일지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론은 현실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현실은 이론의 모태인 것이다. 모태가 없이 태어나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또한 현실은 자연의 섭리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론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인간이 어찌 자연의 섭리를 이길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론은 현실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흔히 이런 기초적인 사실조차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 이론에 함몰되어 현실을 부정하는 경우까지 자주 나타나곤 한다. 실제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더 흔하게 벌어진다. 물론 정책이 현실의 진행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그 정책은 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론과 정책이 현실을 부정하는 경우가 더 자주 나타나는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을 부정하는 이론과 이에 근거한 정책은 이미 실패가 예정되어 있다고 해야 한다. 케인즈 경제학에 입각한 재정정책은 대표적인 사례다.

케인즈 경제학은 재정지출을 조절하여 완전고용과 경기안정을 이룩할 수 있다고 설파하였으나, 현실은 이것을 거부하였다. 세계 각국이 이미 1980년대까지 공통적으로 경험한 바와 같이, 재정정책은 재정팽창을 불렀고, 재정팽창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병리적인 경제현상을 불렀던 것이다. 그 결과 이제는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거나 안정시키겠다고 나서는 정부는 세계적으로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처럼 재정정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적 기초인 케인즈 경제학은 여전히 교과서에 버젓이 실려 있고 아직도 진실처럼 가르쳐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실패한 재정정책이 '뉴딜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실패한 정책은 또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높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던 나라들은 한결같이 재정팽창에 의존했던 나라들이다. 1990년대의 일본과 독일 그리고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1970년대까지의 미국도 재정팽창에 의존했었으며, 그 결과는 1970~8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나타났었다.

이 글을 쓴 최용식은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5년간 대한투자진흥공사에서 근무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과학적으로 해체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세우겠다는 뜻을 품고 직장을 그만둔 뒤 30년 넘게 이 문제에 천착했다. 현재 21세기경제학연구소 [www.ecnms.pe.kr](http://www.ecnms.pe.kr)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글쓰기 작업을 하고 있으며 쓴 책으로는 《사상과 경제학의 위기》 《경제역적들이 들어라》 등이 있다.

그렇다면 번영하는 나라들은 도대체 어떤 경제정책을 펼쳤을까?  
이 물음에는 《경제대통령 그린스핀》이라는 책이 정답을 말해준다. 이 책의 주인공 그린스핀은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으로서, 그가 취임한 뒤 미국경제는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 경기팽창을 기록하는 등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에 대한 평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한국의 그린스핀을 기대한다"는 말을 했을 정도다.

사실 그린스핀이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취임하던 때의 미국경제는 앞날을 기약할 수 없었을 정도였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인 'Back from the Brink', 우리말로로는 '벼랑 탈출' 쪽으로 번역될 수 있을 터인데, 이것은 미국경제가 당시에 얼마나 심각했던가를 대변해 준다. 실제로도 국제수지 적자는 날이 갈수록 커졌던 것은 물론이고, 각종 부채까지 눈덩이처럼 누적되어 솟아날 구멍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 책에 나와 있듯이 '국내 총생산 대비 기업부채는 1980년 74퍼센트에서 1990년에는 91퍼센트까지 증가했고, 가계부채도 같은 기간에 55퍼센트에서 72퍼센트로, 정부부채는 19퍼센트에서 36퍼센트로 증가' 했었다. 소위 '부채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미국의 상징인 록펠러 빌딩이나 할리우드의 유명 영화사까지 일본에 팔려나가는 처지였다. 1인당 국민소득은 일본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1990년대에 들어선 뒤로는 미국은 가장 번영하는 나라 중 하나로 떠올랐고, 국민소득도 일본을 다시 추월하였다. 미국경제가 이런 눈부신 실적을 올린 이면에는 그린스핀이 버티고 있었다는 데에 이견이 거의 없을 정도다. 그래서 '경제의 신'이라고 추앙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다. 메케인이라는 상원의원은 "만약 그린스핀이 죽으면 검은 안경을 씌워서 국민이 사망한 것을 모르게 한 뒤, 가능한 한 오래 의장직에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987년 취임한 이래 대통령이 네 명이나 바뀌었지만, 여전히 연임하고 있으며 현재의 임기는 2006년까지다. 이런 정도라면 그린스핀이 미국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짐작하고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린스핀은 도대체 어떤 이력을 가진 사람일까? 원래 줄리아드 음악학교를 졸업하고 재즈밴드 단원으로 전국을 유랑하던 사람이었는데, 경리를 보게 된 것이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다. 자신의 재능이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뉴욕대학으로 진학하여 경제학

을 공부했다. 졸업 후 컨설팅 회사에 취직하여 경기예측에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자, 다운젠트라는 사장이 그린스핀과 함께 독립회사를 차렸고, 이곳의 경기예측이 다른 곳보다 정확하다는 사실이 금융가는 물론이고 정치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린스핀은 이렇게 발탁된 것이다. 그런데 그린스핀이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에서 경제학 박사도 아니었던 그린스핀을 발탁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지금까지 그린스핀에 대해 다소 장황하게 언급했는데, 《경제대통령 그린스핀》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아서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었다. 사실, 이 책은 건조하기 짝이 없다. 지루하며 다소 난해하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경제를 벼랑에서 구해내 번영을 구가하게 한 경제정책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에는 이 책처럼 탁월한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관료들에게는 필독서로 추천할 만하다.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필독서라고 추천할 만하다.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면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높은 투자수익을 올리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실에 밀착한 경제이론을 연구하거나 배우려는 사람에게도 필독서라고 할 만하다. 다만, 원서가 비꼬는 말투와 반어법이 난무하는 등 매우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나, 잘못된 번역이 없지 않아서 눈에 거슬린다는 점은 지적해 두고 싶다. 또 하나, 역자들이 산업자원부 관료라는 사실도 눈에 띈다. 이 책의 출현을 절실하게 바랐어야 할 재정경제부나 한국은행 관계자들은 왜 먼저 번역하지 않았을까? ❖❖



《경제대통령 그린스핀》스티븐 베크너 지음 | 김경종 외 옮김 | 한울 | 640쪽 | 값 18,000원